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누기복음 · 레위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3

2003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누가복음 · 레위기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여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 주소서.

3월의 단비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시 65:10).
겨우내 움츠려들었던 가지가 싹을 틔우고,
추위에 꽂꽂 얼었던 개울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면
밭갈이 준비에 마음 쓰는 농부들은 어느새 다시금 운택해질 대지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밭고랑에 물을 대고 이랑을 평평케 하시며,
단비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싹에 복 주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고전 3:7).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
부터 나서 …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
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계
22:1).

메마른 우리네 마음 밭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고랑이 패이길 간구합니다.
그 고랑을 따라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江)의 물이 흐르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목마른 자들의 갈함을 달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넘쳐(요 4:14).
황폐한 우리들 가슴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천국의 열매가 가득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2003년 3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성관



레위기 서론

모세 오경 중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친교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화해의 지침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레위기는 거룩한 나라로 부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시해 준 예배(제사)의 모범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서는 주로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직임을 중심으로 각종 제사와 정결 의식을 설명하며, 성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본 서에 제시된 모든 제사는 인류 대속을 위해 갈보리의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여러 각도로 상징하고 예시해 준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히브리인들은 책의 이름을 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책의 서두에 나오는 첫 구절의 이름을 따서 '와이라크'('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로 책명을 정하였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헬라어 번역판인 70인역(LXX)은 본 서의 제사 규정에 있어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들이 레위 지파 출신들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본 서를 '루이티콘'('레위인에게 속한')이라 이름하였다. 뒤이어 제롬(Jerome)에 의해 번역된 라틴 벌게이트(Vulgate) 역시 70인역의 번역을 따라 '레비티쿠스'(Leviticus)라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번역되는 세계 모든 번역들은 대부분 이 70인역과 벌게이트의 번역을 따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바와 같이 오경의 저자는 모세이며(눅 24:44),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본 서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할 수 있다. 물론 본 서에도 모세가 저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기록이 무려 50회나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총 27장 가운데 무려 스무 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나타난 도덕, 종교, 민사 등 각종 율법 조항들이 모세 당시의 시대와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 서의 저자가 모세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본 서의 기록연대 역시 다른 모세 오경과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본 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시점인 B.C. 1446년 이후부터,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최후를 맞은 B.C. 1406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본 서의 기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① 거룩한 제사 의식과 정결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과 ② 전 인격적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③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여야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요약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이다. 아울러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교제는 오직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도 기록 목적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중재로 짐승의 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러한 제사 원리는 장차 율법의 완성이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친히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도리의 모형으로 예표된 것이다.

본 서는 주로 제사와 각종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두는 한결 같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 즉 각종 제사 제도와 그 제사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및 각종 중요 절기들은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주요한 예표와 모형적 기능을 여러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에 기록된 구약 제사법의 여러 규정을 통하여 먼저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제로 하여 철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참 의미를 배우게 될 것이다.

내용 분해

제1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 제사법/1:1-17:16

1. 제물을 가지고/1:1-7:38

2. 제사장을 통하여/8:1-10:20

3. 각종 정결법/11:1-15:33

4. 속죄를 위한 법/16:1-17:16

제2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 성화/18:1-27:34

1. 백성의 성화에 관한 법/18:1-20:27

2. 제사장의 성화에 관한 법/21:1-22:33

3. 절기를 위한 법/23:1-24:23

4. 가나안 땅에서 준수할 율법/25:1-26:46

5. 서원에 관한 법/27:1-34

본 장은 예수께서 베뢰아 지방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으로서,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재림의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자의 자세와 종말에 대한 징조를 같은 장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본 장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다.

1-10절까지는 제자의 길이란 주님으로부터 큰 특권을 받아 그 권세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종으로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의 길을 걷다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도 실족(원어상 뜻: 죄를 짓게 하는 일)케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1-19절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나 돌아와 감사한 자가 한 사람밖에 없음에 대해 한탄하시며, 감사한 문둥병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구원이 주께 있음을 안다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20-37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온갖 징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때에 미혹과 고난과 타락이 있으나, 그 요란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알려 주십니다.

주님은 본 장에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 때에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삶은 항상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가 참된 제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항상 철저한 종으로서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14절에는 두 가지 기도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재판관 비유는 기도할 때에 낙망치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한두 번 기도해 보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서도 기도의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처럼 기도를 잘하여 자랑하는 것보다 세리처럼 죄인임을 자복하는 기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5-34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하며, 타협하여 적당한 선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가족을 부인하면서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영생의 길입니다. 35-43절에는 구원받은 소경이 나옵니다. 한 소경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구원의 주를 힘껏 부르는데 그 소리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소경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 소경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모습이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참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철저히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위임목사님’ 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마음 아파하시며, 또한 그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40절). 그러나 결국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45-46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1-10절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흉악한 죄인으로 보일지라도 주님은 회개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밝히십니다. 11-27절에 나오는 "므나비유" 역시 앞의 교훈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11절이 이어지는 사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 비유의 결론은 19장 전체 맥락과 같습니다. "나의 왕 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내 앞에서 죽이라"(27절). 28-48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또 왕의 등극식이 진행되는데 이 기쁜 행사와 관계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성전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모두 쫓아내십니다.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내 인생의 왕 자리에 앉으사 나를 다스려주소서. ②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담당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본 장의 사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어 성전에 올라 성전을 정화하시고, 날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고 책잡으려 합니다(1-8절). 주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로 대답하시며, 종교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9-18절). 그런데도 종교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서기관,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정부에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를 질문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문제로 질문합니다(19-47절).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유지해 왔던 기득권을 깨뜨리며 흠집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마 23:29). 이런 표현은 그 동안 자신들의 존경과 권위를 빼앗는 치명적인 발언이며 행동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외형상으로는 하나님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기 보다는 자신을 감추고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길에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① 아직도 강박한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② 총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사흘 남짓 남겨두시고, 공식적으로 자신의 가르치는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말세에 대한 강론으로 가르침을 끝맺고 있는데, 이는 17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묵시록적 말씀과 유사합니다(17:20-37).

1-4절에서 주님은 연보케에 헌금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인 두렘돈(=한 고드란트:당시 목욕비 정도)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때가 되면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5-6절). 성전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빠지고 성전 외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당황해하며 언제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느냐고 질문합니다(5-28절). 이에 주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29-38절).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36절).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참 성전 되시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주님이 참 성전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외식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주님의 신적인 권능이 돋보이는 장(章)입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을 행해 원수들을 멸하시는 신적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권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장소를 예비하시고(7-13절), 가롯 유다의 꾀계를 아시고도 거절치 않고 속죄사역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21-22절). 이 보다 더 큰 신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가롯유다의 배신을 알고도 십자가 지시기를 거절치 않으시고, 전혀 알지 못하는 집에 유월절을 준비시키심은 실로 신적인 능력입니다(1-13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주는 의미를 알게 하시며, 참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14-30절). 유월절 자리에서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32절). 그리고 가롯 유다와 종교지도자들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체포당하십니다(39-53절).

가롯유다의 입맞춤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역겨움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인과 종교지도자들의 심문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54-71절). 그러나 그 분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끁니다.

기도 제목 / ① 날 위해 목숨마저도 내어주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주님의 수난기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일련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총독으로 주님을 재판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빌라도는 예수는 죽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16절). 그러나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습니다(25절). 그리하여 민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바라바는 놓여지고 죄 없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두 죄인들과 함께 끌고다 사형장으로 끌려 가셨습니다(32절). 백성들과 관원들 그리고 사형 집행자인 군병들은 예수를 비웃고 희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행악자가 주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아름다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43절).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하늘의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셨을 때에 몇몇 행악자들의 양심이 깨어났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은 주님의 죄 없으셨음을 인정했으며 구경하던 많은 무리들도 가슴을 치며 탄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인간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 속에서 조용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주의 부활과 승천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지를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던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5-6절).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여인들이 전해준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덤가로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확인하였습니다(12절). 다음은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부활 후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16절). 그러다가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 순간, 주님은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31절).

마침내 주님은 모든 제자들이 제신 곳에 나타나셨습니다(36절). 예수께서는 단지 영의 부활이 아닌 몸의 부활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39절). 그리고 부활의 당위성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시고(44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모든 일이 이제 성취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47-48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께 봉헌된 성막에서 드러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 제사 가운데 먼저 번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번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드릴 예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2절).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생축 가운데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모두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드리는 예물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번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의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생활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비록 번제물의 종류는 달라도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번제의 영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번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경배자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한 후에 번제물을 죽입니다. 죽은 예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는 제사장이 제물의 각을 뜯고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립니다.

이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번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기도 제목 / ① 번제물과 같이 전적 헌신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 장에서 번제의 규례에 관해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 장에서 소제의 규례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이 소제의 규례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고운 가루를 그대로 예물로 드리는 방법(1-3절)과 둘째,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4-10절), 그리고 셋째, 소제물을 드릴 때 유의할 사항(11-13절)과 넷째, 첫 이삭의 소제를 드리는 방법(14-16절)입니다.

다음은 소제의 각 요소와 영적 의미입니다. 먼저 고운 가루를 주께 드리는 것은 인간의 거칠고 일그러진 성품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시켜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1절). 소제의 기념물을 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성도가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께 봉사함을 상징합니다(2절). 소제로서 고운 가루를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부친 것, 솔에 삶은 것 등을 불살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심을 예표합니다(4-6절). 그리고 발효성 있는 식물인 누룩이나 꿀이 금지된 대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사용된 것은 타락하고 패역한 삶을 지양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13절). 그리고 소제물로 첫 이삭이 드려진 것은 땅의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 행동으로서, 곧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14절).

이처럼 소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온전히 바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처럼 온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 지시하신 하나님은 본 장에서 화목제의 제물 및 그것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로 구분되어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 제물들은 제사 드리는 자의 몫이 없었던 번제와는 달리 제사 후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자의 공동 몫이었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와 친교의 성격이 강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곧,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레 7:15)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드리는 서원제(레 7:16)와 그리고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낙헌제(레 22:18)가 그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화목제는 제사의 순서상 죄를 속하는 속죄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충성과 정결의 표현인 소제에 이어 가장 마지막에 드려진 제사로서, 곧 죄사함을 받고 헌신과 정결의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 중 교제하는 축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통해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항상 사랑의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엡 2:16).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기도 제목 / ① 화목케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속죄제 제사는 의무제입니다. 즉, 일단 죄를 범한 자는 누구나 다 죄의 사함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은 범죄자의 신분 따라 크게 4등급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 제사장에게도 속죄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 제사장의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히7:27). 13-21절까지는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온 회중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 그 제물과 제사방식이 제사장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 그 죄의 영향력이나 과급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26절까지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27-35절까지는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로 는 숫염소를 그리고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흠 없는 암염소나 흠 없는 어린 암양을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위치나 비중이 높고 클수록 죄의 영향력이 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더욱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요14:6).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1-13절)는 속죄제의 규례를 다루고 있고, 후반부(14-19절)는 속건제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여러 유형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1절)와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진 경우(2-3절),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4절)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속죄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민과 극빈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이들의 형편을 생각하여 다른 제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려는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극빈자라 할지라도 제물의 면제는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 줍니다. 이것은 제물 없는 속죄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곧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어서 후반부(14-19절)에는 속건제의 규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경우(14-16절)와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17절), 그리고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6:1-7)입니다. 그런데 속건 제사는 다른 제사와 달리 배상의 성격이 강합니다. 어떤 죄는 보상과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습니다(히 9:22).

기도 제목 / ① 지난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위해 모든 교구원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며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속건제에 관해(1-7절),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번제를 관리하는 제사장의 정결에 관해(8-13절), 소제의 실행 방법(14-23절)과 속죄제를 드리며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해(24-30절) 각각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제사의 바른 예법을 상세히 알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제사입니다(1-7절). 번제단 위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항상 헌신하는 번제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8-13절). 소제의 예물 속에 누룩을 넣지 말도록 명하신 그 뜻을 좇아, 주의 일을 할 때 결코 거짓과 교만의 마음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14-23절).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은 절대 세상의 속된 것과 함께 섞여질 수 없습니다. 또 결코 함께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25-29절).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입니다. 곧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 세상의 속된 것과 섞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의 심령으로부터 부패하고 냄새나는 세상의 속된 것들을 철저히 제거합시다. 씻어낸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또, 깨뜨려 버릴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의 헌신이 주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속건제와 화목제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입니다. 속건제의 규정은 속죄제와 같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하나도 남김없이 불살라 화제로 드려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빛진 자들이며 나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내면의 가장 귀하고 값진 심령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1-5절). 속건제물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독점할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사이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10절). 화목제에서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은 하루가 더 지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교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 감사와 기쁨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는 자가 됩시다(15,16절). 화목제를 드릴 사람이 자기의 예물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들 중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은 흔들어 요제로 드리고, 뒷다리는 들어 올려서 거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기름과 가슴과 뒷다리를 특별히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일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같이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리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각 교구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일꾼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제사장의 사역을 맡게 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공식적인 위임식을 갖는 장면입니다. 위임식에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한 후(1-13절), 속죄제사(14-17절)와 번제와 위임제(22-29절)를 드렸고 제물을 먹는 식사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 5:4). 심지어 예수님도 스스로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히 5:5).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친히 세우십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충성하는 자가 됩시다(1-3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러한 속죄 제사법을 통해 우리의 구속을 충분히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함임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34절). 오른 컷부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제물의 피를 바르는 행위(23절)는 제사장으로서 듣는 것, 행하는 것,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쓰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듣는 것과 보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목 / ① 나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 각 분야에 봉사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허락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문은 7일 동안에 걸친 위임식 제사를 마친(레 8:33) 제사장들이 제 8일째에 이르러 마침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취임식 장면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8-14절),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15-21절).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므로 자신을 위한 제사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한 제사(십자가를 지심으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배에 앞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1-4절). 제사장의 신분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따라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바로 설 뿐더러, 반드시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삶까지 살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런 중보의 원리는 후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흠 없는 완전무결한 대제사장으로서(히 4:14-15)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시키는 중보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 된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을 본 받아 이러한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영적 계장들입니다(벧전 2:9). 그러므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위 형제들도 회개와 헌신과 친교와 봉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할 제사장들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나로 예수님을 위한 중보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행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제사장장으로 위임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첫 제사를 드리는 취임의 날에 여호와와 명령을 어기고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써 향단의 향을 사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여호와와 불로써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이나 뜻에 위배되는 예배나 헌신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계 5:8). 여러분은 기도나 헌금, 찬양, 헌신을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1, 2절). 제사의 근본정신은 결코 황소의 피나 수양의 기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깃든 믿음과 순종과 헌신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도를 일깨워 주기 위해 제사 규례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순종의 삶이 없는 모든 제사 행위는 여호와께 가증스러울 뿐입니다(사 1:11-13절).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술을 삼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9.10절).

성도들에게 최선의 삶은 최선의 삶은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말씀 보다 앞세우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가는 데까지 따라 가고, 말씀이 멈추는 그곳에 따라 멈추는 “말씀 그대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따르는 삶이 최선의 삶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소서. ② 이웃을 향한 구제와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으로서 각종 제사 제도와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되었습니다(1-10장). 이제 본 장부터 15장까지는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 갈 정결한 생활을 위한 지침들이 소개됩니다. 정결법이란 음식, 출산, 문둥병, 부부 생활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여러 측면을 정과 부정으로 규정하고, 부정해졌을 경우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를 지시한 의식법의 한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 장에는 식생활에 관계된 법규로서 먹거리에 있어 정하고 부정한 동물에 관한 엄격한 분류를 보여줍니다. 즉, 본 장에는 먼저 짐승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1-8절), 물고기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9-12절), 조류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13-19절), 곤충에 있어서 정하고 부정한 것(20-28절), 땅에 기어 다니는 생물의 정하고 부정한 것(29-45절)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매우 상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음식의 정함과 부정함의 규례를 만드신 것은, 평범한 일상의 성결이 영적이고 종교적인 성결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44-45절). 실로 하나님은 선민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 성별된 삶과 정화된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불경건한 백성들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은 하나님 백성의 생명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② 각 나라 가운데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음식물에 대한 정, 부정의 규정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셨던 (11장) 하나님은 이제 본 장에 이르러 신생아를 낳은 산모에게 적용되는 규례를 세우십니다.

본례 자녀의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뜻이었습시다(창 1:28). 그러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자녀의 출산이 고통과 수고의 일로 변하면서(창 3:16), 출산에 따른 분비물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여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으며(1-5절), 부정기간이 다 한 후 정결의 식을 치룸으로써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6-8절). 정결의 식에 반드시 필요한 속죄제에는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의 예물에는 비록 그 형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속죄를 위한 대속 제물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죄인이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결 의식에 관한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이 정결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해결받기 위함이었습시다. 여러분은 정결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죄와 죽음의 굴레를 벗는 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문둥병의 진단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둥병을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 의미는 문둥병(한센씨병)만이 아니라 증세가 심각한 각종 피부병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장 전반부는 피부 증세에 의한 문둥병 진단(1-8절), 난육(爛肉:살이 썩어 들어가는 부위)에 의한 문둥병 진단(9-17절), 종기에 의한 문둥병 진단(18-23절), 화상에 의한 진단(38-44절), 문둥병자의 격리 규례(45-4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후반부 47-59절은 색점에 발한 의복의 문둥병 진단 및 처리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운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45절). 이것은 문둥병자에게 요구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롬 7:21-15). 그러나 율법은 그 이상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 최악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즉 죄와 그 대가로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제시하는 것은 복음뿐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문둥병과 같은 죄악에 감염된 우리들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눅 17:2,13)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읍시다(엡 4:23-24).

기도 제목 / 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여 주소서. ② 2002년 단기선교를 통해 전교회가 하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신체 각 부위에 발생한 문둥병 증세와 의복, 가족류에 생겨난 문둥병 증세(일종의 곰팡이류)를 관찰,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던 13장에 이어 본 장에서는 회복된 문둥병자가 정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정결의식(1-32절)과 주택에 발생한 문둥병 증세를 다루는 방법(33-53절) 및 문둥병에 대한 결론(54-5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완치된 후 2차에 걸친 철저한 정결과정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 1차는 백성이 거하는 진 밖에서 제사장의 집례 하에 문둥병 증의 완전한 소멸을 확인하고 정결례를 행합니다(1-9절). 제 2차는 진 안으로 들어온 완치자가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기다린 후 제 8일째 되는 날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문둥병이라는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10-20절).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정과 죄악을 심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비록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참회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요일 1:9).

죄악과 죽음의 상징인 문둥병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정결의식은 제사장이 부정케 된 곳에 피를 일곱 번 뿌림으로써 정결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효력을 의미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습니다(히 9:22).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참회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깨어진 영적 교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② 강기엽 단기 선교사(스리랑카)가 맡겨진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앞선 13-14장에서는 죄악으로 상징되는 치명적인 질병인 문둥병의 판별법과 완치된 문둥병자가 정상인으로서 다시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의식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본 장에는 갖가지 유출병으로 인한 부정과 그 같은 부정에서 완치된 자가 치러야 할 정결의식에 관해 소개합니다.

본 장에는 남자의 생식기에서 발생하는 유출병과 그 정결례(1-15절), 부부 관계나 혹은 몽정(夢精)등으로 인한 자연적인 설정자(泄精者)가 치러야 할 정결례(16-18절), 여성의 정기적 자궁 출혈인 월경에 따른 정결례(19-24절), 그리고 월경 외에 여성의 비정상적인 분비물로 인한 부정과 그 정결례(25-33절)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에게서 생겨나는 유출병과 그와 유사한 증상들은 모두 사람의 생식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창조 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번성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증상은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것으로서, 생명과 질서와 거룩에 배치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유출병으로부터 정결키 위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듯(7절), 우리는 우리가 죄에 물들 때마다 속히 이를 깨닫고 우리 영혼의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을 것을 말합니다(눅 9:23).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함 몸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범죄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11-15장은 선민의 생활에서의 각종 부정과 그 부정에서의 정결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거룩에 대한 의지를 북돋우었습니다. 이제 본 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대속죄일 규례를 소개합니다.

본 장은 대속죄일을 맞는 대제사장의 성결의식(1-5절)과 대제사장 자신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6-22절)와 대속죄제사를 마친 이후의 정결의식(23-28절) 및 매년 7월 10일을 대속죄일로 지킬 것에 대한 명령(29-34절) 등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사실 속죄제사는 평상시에도 계속 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대속죄일을 통해 대제사장 이하 모든 백성에게 죄악을 회개하게 하신 것은 비록 인간이 순간순간의 범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은 인류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소망케 하는 은혜로운 역할을 합니다(히 7:26-28).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에서 홀로 제사를 드린 아론을 통해 홀로 서는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철저하게 혼자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죄의 은총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소망케 하옵소서. ② 협력선교사(이집트의 허요셉)가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와 부정을 말끔히 청산하는 정결의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1-16장). 이제부터 본 서의 마지막 장(27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거룩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 장은 희생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잡을 때의 유의 사항과 이를 범하거나 헛된 우상숭배를 자행할 때의 엄한 징벌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1-9절). 또한 생명 있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 것과 직접 잡지 않은 고기를 취식할 때의 유의 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10-16절). 이처럼 하나님은 음식물에 관해서조차도 세밀한 규례를 마련하심으로써 인간의 불의한 욕심을 억제시키고 혹 발생할지도 모를 우상숭배의 죄악을 미연에 방지하며 더욱이 생명의 존귀성을 일깨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실로 사소한 부분에서조차 거룩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영히 불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의 짐승의 피 흘림은 인생을 위한 것이며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순결한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다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과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상 배격을 통해 참된 경건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특히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일이 곳곳에 일어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장은 성 윤리의 기본 지침으로서 죄악으로 심히 오염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성적 풍속도를 좇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1-5절)과 추악한 성 범죄인 근친상간의 절대 금지(6-18절) 및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가증하고 추악한 이방 성 문화의 답습 금지 명령(19-23절)과 이 모든 금명을 어겼을 때 받을 처참한 형벌(24-30절)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性)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 이를 남용하고, 타락하고 불의한 도구로 사용하며, 저급한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방임하면 불행과 파멸이 따릅니다. 더욱이 이 성의 타락은 단지 육체적 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영혼까지 좀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좇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30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와 같은 것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육신의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참된 성결과 거룩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② ‘충현선교훈련원’ (CMTC)을 통한 모든 훈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거룩과 부모 공경과 우상 금지 및 희생제사와 관련된 법규들(1-8절)을 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취할 이삭을 추수하지 말 것과, 흠치는 일과 거짓 언행을 하지 말 것, 험담을 금할 것과 타락하고 음란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 것, 이웃을 사랑할 것(9-37절) 등을 명령합니다.

결국 이 법규들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2대 명령으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신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3-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겸손히 순복하는 행위와 일치합니다. 둘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 행위입니다. 셋째, 헛된 신상 숭배를 금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령 한가운데서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정욕의 신을 만들고 새기며 음행하듯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에게 당신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진정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서는 본 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을 다시금 반복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에 대한 명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런 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일시적이고, 이해타산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순결을 위한 것입니다. 1-2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가 있습니다. 첫째, 인신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나라들은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무당을 따르는 자입니다. 셋째, 부모를 저주하는 자입니다. 이는 부모에게 악담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넷째, 음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의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한 자나 무당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주옵소서. ② 전 주일학교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주로 제사장의 성결과 완전성에 관해 언급하는데, 거룩을 엄수해야 할 제사장이 시체에 접촉했을 경우의 대처법(1-6절), 정결한 결혼과 제사장 자녀의 성적 순결 준수 명령(7-9절), 모든 백성의 종교와 삶의 사표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에게 특별히 요청되는 까다로운 준수 명령(10-15절),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신체조건(16-24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에게 요구되었던 정결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갖추어야 할 상태로 첫째는 거룩입니다(1-9절). 제사장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둘째는 무흠입니다(10-24절).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부패한 죄인인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 없고 거룩하신 분이로서 완전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거룩과 무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정도 거룩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성결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과 성결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거룩되게 하옵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은 하나님께 드려질 완전한 제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도록 지시하셨습니다(17-21절). 이어 제물로 합당치 않은 것(22-25절)에 대한 지시와 제물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무자비한 방법을 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제물을 통한 백성들의 헌신이 온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두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용 짐승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제물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흠 없는 제물 속에는 드리는 자의 신앙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만큼 드리는 자의 정성과 성결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된 제물은 하나님께 열납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생명을 잃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호를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은 완전하고 흠이 없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당신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정성은 어떠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흠이 없는 영적인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신령과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장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영구히 준수해야 할 거룩한 절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매주 어김없이 지켜가야 할 안식일(1-3절)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켜야 할 3대 절기인 유월절(4-14절), 오순절(15-22절), 초막절(33-44절) 및 신년절인 나팔절(23-25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예표하는 대속죄일(26-32절) 등에 관한 규례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위의 26-32절을 살펴보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지는 절기로서 일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장 뚜렷하게 예표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속죄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완전하게 성취 되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단번에 드림으로 회개하며 애통해 하는 심령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각종 절기와 성일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와 뜻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날들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주일 예배 때만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 과

믿음의 말

• 찬송 / 344장(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본문 / 롬 10:1~13

조금 빠르게 ♩ = 100
 첫음부터 힘차게 시작하고, 쫄음과 연속된
 8분음표의 리듬에 유의하여 가사를
 분명하게 발음하고 탄력있게 찬양합니다.



1. 이 눈 에아 무증 거 아니 보 어 도 믿음 만을 가 지 고 서 늘 걸 으 며
2. 이 눈 에 보 기 에 는 어 떠 하 든 지 이미 얻 은 증 거 대 로 늘 믿 으 며
3. 당 신 의 거 복 함 을 두 고 맹 세 한 주 하 나 님 아 버 지 는 참 미 뵈 다

첫째 단과 마찬가지로의 느낌으로.



1. 이 귀 에아 무 소 리 아니 들 려 도 하 나 님 의 악 속 위 에 서 리 리
2. 이 맘 에 의 심 없 이 살 아 갈 때 에 우리 소 원 주 안 에 서 이 루 리
3. 그 귀 한 모 든 악 속 믿 는 자 에 게 능 치 못 할 무 슌 일 이 있 을 까

후렴 후렴에서는 더욱 힘차고 흥겹게 찬양합니다.



걸 어 가 세 믿 음 위 에 서 서 나 가 세 나 가 세 의 심 버 리 고

쫄음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걸 어 가 세 믿 음 위 에 서 서 눈 과 귀 에아 무 증 거 없 어 도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율법적인 삶과 믿음의 말에 대하여 공부한다.
2. 믿음의 말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공부한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1절~4절 :

② 5절~8절 :

③ 9절~10절 :

④ 11절~13절 :

-
2. 다음주일 설교(‘믿음의 말’)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 ① ‘믿음의 의(義)를 상실한 이스라엘’의 단원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의 교회가 믿음의 의를 상실한 이유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특별) 복음서

- ② ‘율법에 근거한 삶’의 단원을 읽고, 율법에 근거한 삶에 대한 정의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단원에 나타난 예는 제외).

- ③ ‘마음과 행동의 부(不)조화’의 단원을 읽고, 내면과 외적인 행동의 일치여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해한 후, 그 뜻을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 ④ '율법주의적 판단'의 단원을 읽고, 율법주의적 판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는 피해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 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에 대한 단원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지도록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 ⑥ '마음과 입술의 일치'의 단원을 읽고, 마음과 입술의 일치가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또 반대로 일치 되지 않았을 때의 심각함도 말해 보십시오.

- ⑦ '차별의식에서 벗어남'의 단원을 읽고,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어떠한 유익을 미치는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⑧ '부르심과 보내심'의 단원을 읽고, 부르심과 보내심의 관계를 이해한 후, 보내심에 따라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해보십시오.

⑨ '의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의 단원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자신의 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소서.
2. 믿음의 의가 모든 민족에게 차별없는 구원이 됨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제 2 과

그가 하나님을 믿으매

• 찬송 / 397장(주 믿는 사람 일어나) • 본문 / 롬 4:13~17

이 찬송은 영적인 군가입니다. 한마디를 두박으로 하여 확신에 찬 목소리로 힘차게 찬송해 보십시오(오히려 템포를 약간 빠르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 = 70

못갖춘 마디(약박으로 시작)

1.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2. 온 인류 마귀를 쫓아내 죄에 빠지지 진리로 띠를 띠고서
3.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이곳에서부터 조금씩 감정을 고조시켜 갑니다

다 쳐서 열 하 세 저 앞 에 오 는 적 군 을 다 쏘 워 이 겨 라
늘 기 도 드 리 세 참 믿 고 의 지 하 면 서 겁 없 이 나 갈 때
참 기 켜 일 일 세 이 어 둔 세 상 지 나 서 저 천 성 가 도 록

이 부분을 시작할 때
템포가 느려지지 않도록
주의 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무협

주 예 수 믿 는 힘 으 로 온 세 상 이 기 네
주 예 수 믿 는 힘 으 로 온 세 상 이 기 네 믿 음 이 이 기 네
주 예 수 믿 는 힘 으 로 온 세 상 이 기 네

온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듯한 기쁨으로 찬양!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2. 율법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13절 :

② 14절~15절 :

③ 16절~17절 :

2. 다음주일 설교(‘그가 하나님을 믿으매’)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원을 읽고,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동부) > 열매

② ‘율법보다 앞 선 믿음의 언약’의 단원을 읽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③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의 단원을 읽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義)보다 선한 행위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義)를 추구하게 된 이유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④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기초'의 단원을 읽고, 율법의 이중적인 역할에 대하여 대하여 말해 보고, 율법이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⑤ '오직 믿음으로만'의 단원을 읽고, 인간의 행위가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⑥ '행위와 관계없는 의'의 단원을 읽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말해 보고,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그가 받은 의(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⑦ '믿음의 조상'의 단원을 읽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받게 된 이유를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⑧ '영적인 변화'의 단원을 읽고,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변화는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다하심에 이르게 됨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 믿음을 통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

본문 :



제 3 과

바람과 바다의 주인

• 찬송 / 442장(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본문 / 막 4:35~41

조금 빠르게 ♩ = 108

첫 박의 음을 발판삼아 부드럽게
도약하듯 다음 음을 노래합니다.



- | | |
|------------------|----------|
| 1.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항상 인도하시고 |
|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 우리 영접하시고 |
| 3. 흠이 없고 악한 우리도 | 용납하여 주시고 |
|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 | 살아가게 하시고 |

첫째 단과 둘째 단은 가사의 의미에 맞춰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찬송합니다.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줍소서
길을 잃은 양의 무리들	항상 인도함소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함소서

이 부분은 가사의 의미를 강조하듯
약간 힘있게 노래합니다.

다시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함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나 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함소서

셋째 단과 마찬가지의 느낌으로
넷째 단을 노래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한 음 한 음
충실하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함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들어 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나 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함소서

아 멘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심에 대해 배운다.
2. 삶에 닥친 폭풍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에 대해 배운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35절~36절 :

② 37절 :

③ 38절~39절 :

④ 40절~41절 :

2. 다음주일 설교('바람과 바다의 주인')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목숨을 잠잠케 하시는 분'의 단원을 읽고, 이 사건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두 종류의 음성'의 단원을 읽고, 환난이 닥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음성에 귀기울이게 되는지 말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 보십시오.

③ '언제나 필요하신 분'의 단원을 읽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기초로 닦쳐진 문제를 다루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④ '무한한 능력의 구주'의 단원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⑤ '유일하신 평강의 주'의 단원을 읽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의 파도를 잠재우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⑥ '하나님의 아들'의 단원을 읽고, 여러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떠한 계기로 느끼며 확신하게 되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⑦ '경험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의 단원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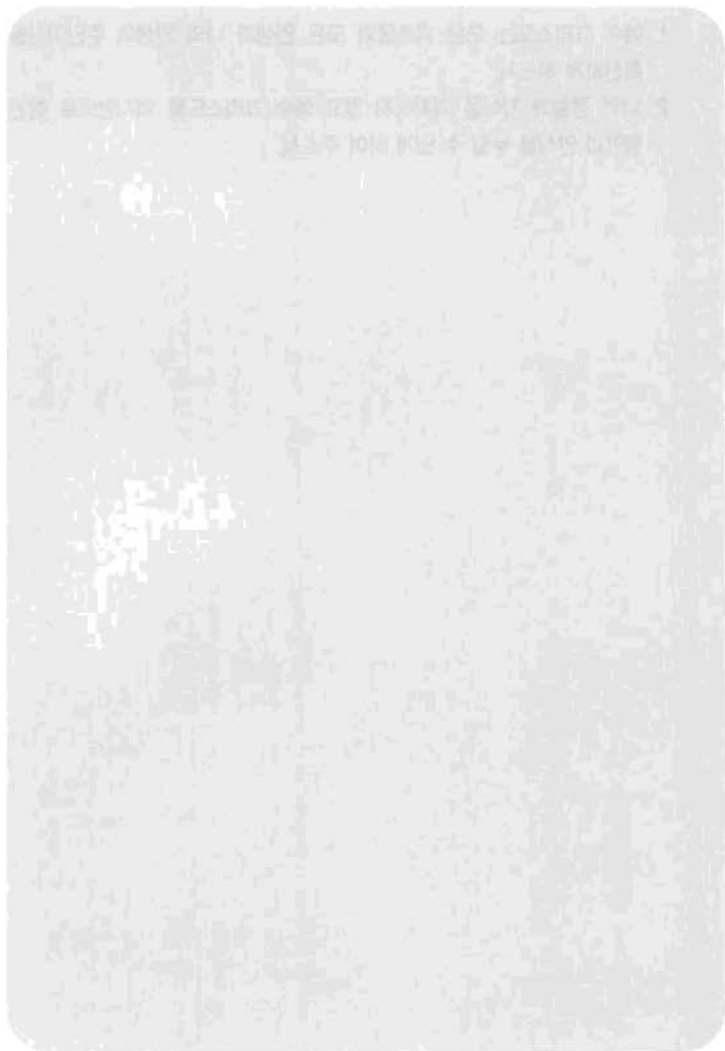
⑧ '주를 향한 믿음의 결국'의 단원을 읽고, 우리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져야 할 확신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생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게 하소서.
2.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제목 :

본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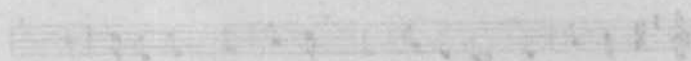


45 4 15

和声四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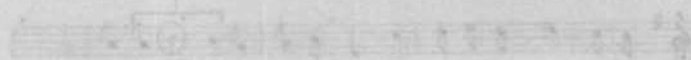
45-7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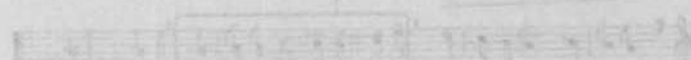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和声四重 1980.8.26 组(男声) (和声四重 1980.8.26) 合唱

제 4 과

빛의 자녀

• 찬송 / 358장(아침 해가 돋을 때) • 본문 / 엡 5:7~14

이 찬송의 선율은 위 아래로 넘실거리는 듯한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발성적으로
 매끄러운 울림을 유지하면서 찬송합니다.

모듬으로 ♩ =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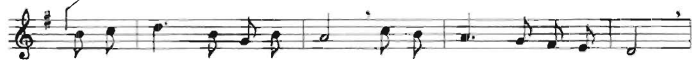
1. 아 침 해 가 돋 을 때 만 울 신 선 하 여 라
 2. 새 로 오 는 광 음 을 보 람 있 게 보 내 고
 3. 한 번 가 고 안 오 는 빠 른 광 음 지 날 때
 4. 방 낮 주 를 위 하 여 움 과 망 을 드 리 고

임표를 정확히 지키면서도 앞뒤의 선율이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해서
 노래합니다.



니 도 세 상 지 낼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일 을 행 할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귀 한 시 간 바 쳐 서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주 의 사 링 니 타 내 햇 빛 되 게 하 소 서

후렴 더욱 고조된 감정을 가지고.



주 여 나 를 도 우 사 세 월 허 송 앓 고 서

둘째 단 후반부에서와 같이 임표를
 정확히 지키되 앞뒤의 선율이 단절된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 둔 세 상 지 낼 때 햇 빛 되 게 하 소 서 아 멘

들어가면서(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

1.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2. 빛의 자녀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살펴본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자신의 말로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이 것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성경공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① 7절 :

② 8절~10절 :

③ 11절~12절 :

④ 13절 :

⑤ 14절 :

2. 다음주일 설교('빛의 자녀')의 단원에 따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려는 교훈을 나누어 보십시오.

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의 단원을 읽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② '이전과 이후'의 단원을 읽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③ '어둠에서 빛으로'의 단원을 읽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진리가 신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④ '죄를 드러냄'의 단원을 읽고, 믿지 않는 친구들의 범죄(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도 말해 보십시오.

⑤ '어둠을 이김'의 단원을 읽고, 신자가 다른 신자의 죄를 비추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
- ⑥ '빛의 자녀가 받는 축복'의 단원을 읽고, 빛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간략하게 말해 보십시오.

나가면서(다음의 기도제목으로 다함께 기도하기)

1.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셔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소서.
2.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빛을 비추이게 하소서.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제4과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남성도구역공과' 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 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출판의 만나 · 2003년 3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편집진 / 만나 : 장 훈(1-6일), 임현덕(7-13일), 이희식(14-18일),

최종철(19-25일), 하중철(26-31일) 목사

국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발행처 : 중천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652-8200) 배매곡